왈칵 눈물이 쏟아지게 만드는 소중한 이야기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뭉클했던 날들의 기록

안도현 엮음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슴속에 뭉클한 이야기 하나쯤은 갖고 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지금의 나로 성장하게 한 이야기 말이다. 또는 누군가로부터 들은 잊을 수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생각만으로도 입가에 아련한 미소가 지어지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힘이 되기도 한다.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의 하루는 대부분 이야기로 시작된다. 물론 특별한 의미가 없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떤 것은 삶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역사가 되기도 한다.

어떤 이에게 오늘은 결혼식 기념일 일수 있고, 아이가 태어난 날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에게는 사랑하는 부모가 세상을 떠난 날일 수 있다. 그저 그런 일상의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야기가 있는 특별한 날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크고 작은 이야기가 모여 한 사람의 생애가 되고 역사가 된다. 마치 작은 시내가 모여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

안도현 시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분들에게 떼를 쓰듯 졸랐다. 이 황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던 것이다.

'뭉클했던 날들의 기록'은 "나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지게 만드는 이야기"이다. 안도현 시인에 따르면 필자 중에는 이름만 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이도 있고 생전 처음 자신의 이야기를 쓴 이도 있다.

책은 안도현 시인이 기획하고 엮은 두 권의 산문집 가운데 하나다. 다른 산문집 '사랑하고 싶은 순간들'도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이다.

이야기를 풀어낸 이들은 20대 젊은이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다. 직업이나 관심사 하고 있는 일도 각기 다른 다양한 계층들이다. 모두 45편의 글들은 저자들이 가슴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한 보자기씩 풀어준 것이다.

책에는 엄마를 생각나게 만드는 김치죽 이야기도 있고 사람 목숨이나 다를 바 없는 유기견을 돌보는 이야기도 나온다. 책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지게 만드는" 희로애락의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엄마의 안식년'(김추리)이야기는 황혼에 다다른 엄마가 인지능력이 떨어지면서 겪고 있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는 금슬이 좋았다. 그러나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정확히 말하면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엄마는 '이방인'이 되고 말았다.

저자는 이에 대해 "이를 어쩌면 좋은가. 인생 90년을 고단하게 사신 부모님은 비로소 안식년을 맞으셨단 말인가. 엄마의 눈을 피해 요양원 현관문 밖에 숨어서 부모님의 향기로운 새 날이 곧 열릴 것 같은 코앞의 내일을 눈물로 읽는다"고 소회를 밝힌다.

'아버지의 넥타이'(최수웅)는 30년 양복점을 해오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다. 사람들이 더 이상 맞춤양복을 입지 않으면서 양복점은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마지막 가게를 정리하던 중 작업대 밑에서 포장된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발견한다. 예복을 맞추면 서비스로 내주던 사은품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가서 셔터를 내리라고 했다. 삼십년 동안 본인 손으로 열고 닫았던 문을. 철컹. 요란한 소리를 들으며 분명하게 느꼈다. 이제 한 시절이 끝났다고."

이밖에 책에는 생후 2주 된 천연기념물 어린 산양을 구조한 이야기도 있으며 작은 선행으로 주변을 감동시킨 에피소드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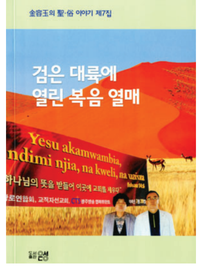
한편 책을 엮은 안도현 시인은 "이 책의 필자들의 어조는 대부분 차분하고 담담하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페이지를 넘기다가 반드시 한번은 왈칵 눈물을 쏟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 책의 내용들이 가공하지 않은 진실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래서 더 각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들이다. 우리에게 가공하지 않은 감동을 선물해주신 필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한다.

〈몰개·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검은 대륙에 열린 복음 열매

김용옥 지음



수필가이자 시인인 김용옥 광주문인협회 회원은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시인은 '金容玉의 聖·俗 산책하기 下', '다시 超人을 기다린다', '마음의 오선지에 그린 사계절의 抒情' 등 모두 6권의 책을 펴냈다.

그동안 틈틈이 수필가로 광주문협과 '광주수필'을 포함해 광주고 문학동호인으로 여러 지면에 글을 발표해왔다. 시인은 그렇게 오랫동안 내면에 드리워져 있던 글에 대한 갈증을 풀어왔다.

얼마 전에 펴낸 '검은 대륙에 열린 복음 열매'는 시인의 또다른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책이다. 광주시 초교파장로연합회 회장과 고신 전라노회 장로 부노회장을 역임했던 이력이 보여주듯 그는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삶을 살아왔다.

책에는 6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에 쓴 글이 대부분이다.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허전한 귀가길', '제주도를 찾은 까닭', '이제 다 내려 놓았는가' 같은 글들은 잔잔한 여운을 준다.

이처럼 이번 책에는 신앙 에세이를 비롯해 탄자니아 선교활동, 시와 수필 등 다채로운 장르의 글이 엮였다. 탄자니아 선교 활동은 힘든 여정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들을 담고 있다.

한편 저자는 언론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으며 광주일보 편집부국장과 한국기자협회 전남도지부장을 역임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운영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저자는 "이 책이 나온 다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다시 이런 저런 푸념을 쏟아내며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을 내 모습을 그려본다. 언론인으로서 글 쓰는 일을 '하늘이 준 직업'으로 여겼기에, 남은 삶도 그렇게 보내리라 여겨진다"고 말한다.

〈도서출판 은성〉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재테크는 오십부터

지철원 지음

"당신의 노후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산관리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지만 너무 늦었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100세 시대, 노후는 예상보다 늦게 시작되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냉정히 판단해 50대 즈음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팍팍한 현실에 치여 아직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꾸는 50대 직장인들의 재테크 필독서가 나왔다. 자산관리전문가이자 은퇴설계전문가인 지철원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연구위원이 쓴 '재테크는 오십부터'는 평생 월급처럼 받게 해주는 연금 인출 전략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오십'은 은퇴 후에 빈곤하게 살 것인지, 최소한 지금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며 품위 있게 살 것인지를 가르는 마지막 재테크 골든타임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산과 현재 월급이 얼마든 노후를 대비하기에 오십도 아직 늦지 않은 때라면서도 다만, 퇴직 10년 전부터 준비하는 오십의 재테크는 지금까지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은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인출 전략으로 시작한다. 흔히 생각하는 예·적금이나 주식, 부동산 같은 투자는 그 다음 이야기다. 현재 나의 재정적 상황에서 가장 유리하게 퇴직 이후의 현금흐름을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꼭 알아야 할 실용적 팁까지 꼼꼼하게 짚어준다.

'연금의 미덕은 노후 자금을 다른 용도로 써버리는 것을 막아주는 데 있다. 직장을 옮길 때마다 받는 퇴직급여를 다른 용도로 써버린다면 노후 자금이 부족할 것은 뻔하다. 공적연금만 믿을 게 아니라 사적연금으로도 젊을 때의 소득을 연금화해야 한다. 하찮은 돈이라도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의 심리적인 만족감이 얼마나 큰지 젊어서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위즈덤하우스·1만7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할머니의 그림 수업

최소연 지음

책 속 이야기는 한편의 동화처럼 시작된다. 어느 날 그림 선생 한 명이 할머니들에게 찾아와 대뜸 수업을 권하는 제주 마을이 있다. 거기에는 일평생 그림은커녕 글조차 제대로 배운 적 없는 여덟 '할망'들이 산다. 그저 "기림(그림) 선생의 말이 참 귀엽다"는 순박한 이유로 수업에 임하기로 결심한 할망들의 붓 끝에서 무언가 피어날 수 있을까.

제주 조천읍 선흘 마을의 평범한 할머니들과 미술가 최소연이 함께한 따듯한 이야기 '할머니의 그림 수업'이 출간됐다. 책의 저자이자 삽화작업에 참여한 할머니들의 평균 나이는 87세. 수업에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그린 것은 아니다. '대죽부래기(옥수수)', '콜라비', '긴꼬리딱새'와 같은 일상물을 화폭에 투박하게 담아낼 뿐이다. 할망들은 여느 화가처럼 고고한 문예사조 따위를 의식하면서 작품을 그린 것은 아니지만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세상을 담았다.

그렇다 해서 할망들의 그림이 변죽만 울린 것은 아니다. 90여편의 그림을 통해 할망들은 나름의 '해방일지'를 써내려 간다. 백지에 물감을 떨어뜨리며 첫 배움의 즐거움을 수확하고, 마을 전체를 갤러리처럼 물들여 간다.

"오이처럼만 일기도 잘 만나서 자라면 행복하다. 이생도 이렇게 화평하면 오직 좋으랴"

제주 할망들의 글과 그림은 화려한 기교나 수사를 곁들이지 않는다. 묵묵하고 소담한 그림 속 오이 같은 맛이 있을 뿐이다.

아울러 책은 이방인에 대한 '환대의식'까지 담아 낸다. 낯선 그림선생을 식구처럼 받아들이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독자에게 인간관계란 무엇인지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낯선 이와 교감하고 서로 스며드는 할머니들의 수업은, 각박한 세상 속에서 타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예쁘게 남발하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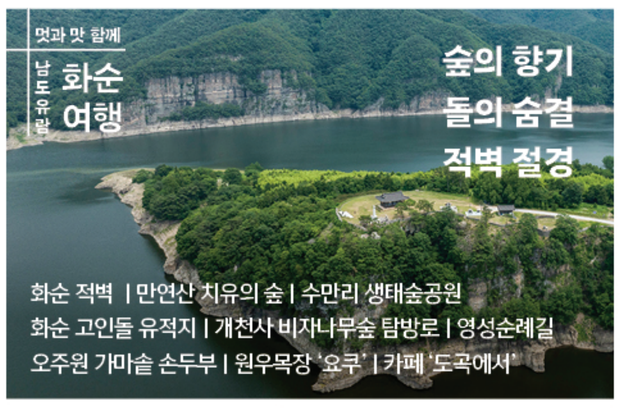
〈김영사·1만78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예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3년 7월호
2023년 6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Busker Busking
거리공연, 버스킹이 뜬다
왜 버스킹인가?
그 거리의 브랜드가 된 버스킹
광주 버스킹 월드컵



호남의 누정①-프롤로그
유순한 산야에 앉은 우리 '누정'을 알현하다

사진으로 만나는 2023 호남예술제
세계 무대 빛낼 예술 꿈나무들의 무대
68회 호남예술제 열띤 경연

예향 초대석
원자에서 인간, '빅 히스토리' 엮은 물리학자
김상욱
"물리학자는 우주의 시(詩)에 반한 사람"

문화를 품은 건축물㉒ 우제길미술관
'우제길 미술' 모티브 삼은 '빛을 담은 미술관'

특별기획- 新전남관광여지도 ②

특별기획- '목포 어디까지 가봤니?'②

해외문화기행 ⑱-프랑스 파리
여행객들의 낭만도시 에펠탑, 루브르, 몽마르트의 추억

기획-도시가 역사를 기억하는 법 ⑨ 에필로그
'도시가 걸어온 길'을 만나는 시간 가슴에 남는 묵직한 기억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살 순례기 '변두리와 언저리'⑨
배고픈 다리에서 배부른 다리로

오동진의 '시네마 역사' ⑦
5·18 광주로 택시 유턴, 학살의 기억이 연대의 역사로 전환